

학술용어 관점에서 ‘한국고유한자’ 명칭과 분류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한자계문자’를 제안하며

허 철*

국문초록

학술용어는 연구자들 뿐 아니라 관련 연구를 수용하는 일반인들의 소통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교제 도구이다. 따라서 학술용어는 사용자들 모두의 공통된 약속이며, 이 약속은 정확한 함의를 포함하면서도 오해나 몰이해의 여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때,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한국고유한자’라는 명칭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특수하게 사용된 일련의 한자군과 관련한 명칭은 연구자에 따라 ‘俗字’, ‘朝鮮異體’, ‘韓國固有漢字’, ‘異體’, ‘韓俗字’, ‘韓國漢字’, ‘朝鮮漢字’, ‘借字’, ‘吏讀’ 등 다양하게 명명될 뿐 아니라 그 정의와 분류 또한 다기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다기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한자가 중국어를 기록하는 문자부호라는 협의적 혹은 전통적인 한자의 정의를 인정하고, 그와 다른 원인이나 현상으로 인해 조자, 혹은 사용된 한자를 대적점 혹은 변별점으로 삼아 그 특성에 주안을 둔 용어를 제안하고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곧 우리는 한자를 중국문자, 혹은 중국어로 표기하는 문자로 인식하고, 그와 다른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의 고유성을 강조한 나머지 변별성을 강조하는 태도이다. 이로 인해 현상은 하나이지만 분석과 명명이 달라진 多名一實한 학술용어가 사용됨으로써, 한자와 관련된 학술 연구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한자에 대한 이해에도 여전히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동아시아 전체 한자문화권의 문자 생활과 그로 인해 파생된 다양한 문자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기한 현상 전체를 아우르는 명칭으로 “漢字系文字”의 재정의의를 제안하였다. 본고에서 정의한 “漢字系文字”는 한자로 지칭되는 문자시스템의 특성과 그 영향을 수용하여 한자문화권 각 국과 민족 내에서 수용, 변용, 참고하여 제작 혹은 사용하였던 모든 문자 체계와 부호를 지칭한다. 이에 따라 개별 언어의 영향 아래 형성된 漢語漢字와 韓語漢字, 日語漢字, 越語漢字 등은 물론이요, 이 용어를 통해 표의 기능이 아닌 시각 기호로서의 한자의 문자적 특성에 영향을 받아 製字된 거란과 여진 등 주변국의 여러 문자 체계와 시각적 한자 형태의 일부분을 생략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한 특정 기호와 부호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결국 이 용어를 통해 지금까지 한자로 통칭되는 특정 문자 시스템을 특정 언어에 귀속하여 설명하려는 관점에서 벗어나, 한자문화권에서 보편·특수로 사용되었던 여러 문자체계와 부호체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고유한자, 한자계문자, 한자, 방한자, 부호, 기호, 한자문화권

* 단국대학교 한문교육연구소 연구원 / heochul@gmail.com

— 목 차 —

I. 서 론

II. 한국의 독특한 한자 사용에 대한 연구사 검토

III. 기호와 부호, 문자, 한자의 용어 검토

IV. 용어 “漢字系文字” 재정의와 분류

V. 결 론

I. 서 론

한자는 인류 최초의 문자 중 하나이며, 문자는 인류를 역사의 시대로 이끈 대표적 발명품이다.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여 현재의 문화와 문명을 이룰 수 있었다.¹⁾

문자는 사회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인류에게 음성언어로는 불가능한 약속과 교제의 기능을 한층 확대시켰다. 약속의 기능이란 역사, 계약, 지식, 정보 등 각종 ‘증거’로서의 기능을 말하며, 교제의 기능이란 의사 전달의 기능으로 메시지로서의 기능을 말한다. 이러한 증거나 메시지로서의 기능이 가능했던 이유는 문자가 시각을 이용하여 기록을 했기 때문이다. 특정 서사 도구를 이용하여 특정 대상물에 특정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음성언어의 한계를 극복하여 장시간 보존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문자의 사용은 대규모 사회 연중에 의해 끊임없는 조정을 거쳐 통일되고, 규범화, 표준화한 무엇인가로 발전하며, 이 과정 속에는 강제성도 부여되었다. 이렇게 발전한 문자는 인류 사회의 발달과 함께 발전하여 일반적인 부호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문자는 대상 연중의 언어적 특성과 문화를 반영하여 발전한다. 문자는 언어의 특성에 따라 발전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언어는 문화를 반영한다. 결국 한자는 중국어의 특성에 따라 발전한 문자체계이며, 중국인의 사유방식을 담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기호체계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이중 언어 집단 또한 한자를 사용한 것도 사실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한자가 여전히 픽토그램(pictogram)으로서의 속성을 유지한 점과 지식권력언어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각적 이미지와 이미지 유추가 가능한 표의문자로서의 속성은 해당 문자가 전달하는 정보와 개념을 수용자가 자기화하여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인식은 ‘天’을 ‘하늘’이라는 고유어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정보를 습득하는데 ‘티엔’이라는 중국어 발음은 중요치 않다. 이는 언어가 사라지지 않으면서 해당 문자를 응용하거나 변용하여 사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게 하였기에 거부 반응 또한 매우 적었다. 곧 한자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민족 언어와 문화적 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이는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를 조자할 수 있다는 기본적 인식을 제공한 실마리였다고 할 수 있다. 고유어의 어휘적 의미나 음가 대응에 부족한 경우 새로운 한자 형태의 문

1) 문자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는 한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문자의 탄생에 관련된 문헌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많으며, 고고학적 발견은 현상을 보여줄 뿐 어떤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문자의 사용과 발달은 인류의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출발에서 오랜 시간을 거쳐 끊임없이 수정되고 조정되어 현재에 이르렀다는 사실 뿐이다.

자를 생성하거나 기존 한자에 고유어의 음이나 의미를 더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우리는 이러한 한자군을 현재까지 “한국고유한자”와 같은 여러 방식으로 명명하고, 이를 다시 국조자, 신음자, 신의자와 같이 분류하였다.

그러나 오랜 동안 이 용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異見이 제기되었으며,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주지하듯 학술용어는 연구자들 간의 공통된 약속이며,²⁾ 이 약속은 정확한 함의를 포함하면서도 오해나 물이해의 여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인의 시각에서만 접근하였지만 이제 동아시아학 전체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방식³⁾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 아래 학술용어의 중요성에 관점에서 현재까지 관련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한국 고유한자’라는 명칭의 문제점을 기호와 부호, 문자라는 기본적인 시각에서부터 검토하고, 표준화의 지향을 국내를 넘어 한자문화권 전체내의 한자와 관련된 문자시스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담고자 한다.

II. 한국의 독특한 한자 사용에 대한 연구사 검토

이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우선 관련 연구에서 얼마나 다양한 명칭과 정의, 분류가 사용되었는지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독특한 한자 사용, 곧 “고유한자”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1806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현재까지의 연구를 그 특성에 따라 두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학자들이 한국고유한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기록한 시기를 땡아기로,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대량의 한국고유한자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본격 연구를 시행한 시기를 발전기로 설정하고⁴⁾ 개별 시기의 주요 연구를 살펴보았다.

2) 어떤 학문 분야이든 고유한 성격을 지닌 전문 학술 용어를 사용한다. 대개의 경우 학술용어의 표준화는 학술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선행과정이다. 학술용어의 중요성은 표준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지칭하는 대상이나 실질 현상은 하나이지만 그에 대한 명명과 함의가 연구자 혹은 학파마다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까지 학계에서 함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관련 연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기도 하며, 학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학술 용어의 사용에는 우선 현재 어떻게 학술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고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착하게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학술 용어를 통일하고자하는 것은 곧 표준화를 지향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용어와 명료한 정의와 분류는 학술 연구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국가표준기본법(법률 제10615호)」 제3조에서는 “국가 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참조표준·성문표준 등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이라고 규정하였다. 곧 표준을 제정한다는 것은 단위 국가나 지역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동일한 명명 방식 및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상호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정확성과 합리성 및 국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4) 한국의 독특한 한자 사용에 관한 연구가 일본 학자인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영향을 받았다는 알 수 없다. 다만 일본에서는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가 『同文通考』에서 한자를 國字와 國訓, 借用, 無用, 偽字, 省文의 6 종류로 구분하고, “國字”를 중국에 존재하지 않는 일본의 한자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萌芽期

조선말에 편찬된 자전이나 운서 중에 한국의 독특한 한자 사용에 관한 전체적인 기록을 한 예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다. 관심 있는 몇몇 연구자들이 한국의 독특한 한자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리의 필요성을 느껴 개인적 저서에 옮겨 적은 기록만 찾을 수 있을 뿐이다.

현재 우리가 발견한 한국의 독특한 한자 사용을 정리한 최초의 기록은 1806년 출판된 정동유의 『書永編』이다. 이 기록은 元, 亨, 利, 貞의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동유는 50쪽에서 51쪽까지 42개, 71쪽에 “畚”과 “桴” 2자, 그리고 기타로 3개를 합하여 모두 47개를 ‘字書所無之字’라는 명명으로 기록하였다. 정동유가 기록한 ‘字書所無之字’는 수량 면에서는 적으나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한자 중 중국의 자서나 운서에 포함되지 않은 독특한 자형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케 해 준다. 특히 정동유는 일부 한자는 아랫 부분에 훈민정음의 자형을 이용하여 한국어 발음을 표기하기 위한 조자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두 번째 기록은 1850년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東國土俗字辯證說』이다. 이규경은 이 기록에서 한국의 독특한 한자를 “土俗字”라고 명명하였다. 이 기록은 당시에 유행하던 서적과 관부의 문헌 등에서 地名, 人名, 水名, 吏讀의 土俗字 총 99개를 추출하여 정리한 것이다. 주목할 것은 그의 정리 방식인데, 먼저 표제자를 설정하고 독음, 자의 등을 기록한 후 마지막으로 각 예를 기록하는 일련의 과정이 아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의 자전과 동일한 방식이다.

鳶【音격 或던 字書鳳字. 柳夢寅於於野談. 鳶憑雲麻浦有鳶天鳥學射人.】 羣【音쇼. 姓也. 見李芝峯 睟光類說.】

그러나 이 두 기록 이외에 전문적으로 조선의 독특한 한자 사용에 관한 기록을 찾기란 쉽지 않다. 실제 문자 생활에서는 한국 특유의 한자를 사용 하였으나 그에 대해 전문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이유를 알기는 어렵다. 다만 당시 지식인들에게 이러한 한국 특유의 한자 사용이 큰 주목을 받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조선 이후 한반도는 근대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후 한반도에서 몇 종의 漢韓詞典들이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 1906년 彙東書館에서 출판한 池錫永 편찬의 『字典釋要』에는 57개의 한국고유한자가 수록되었다. 『字典釋要』 범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식영은 그는 한국만의 독특한 한자 현상을 인식하였다. 그는 이러한 한자를 “俗字”라고 지칭하고,⁵⁾ 자전에서 다른 부호를 표기하여 해당 한자가 한국 속자임을 밝히고 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세 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비록 속자라는 명칭은 사용하였으나, 이 사전은 최초로 한국의 독특한 자형을 가진 한자를 표제자로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한자와 다른 한자라는 지위를 부여하였다.

둘째, 한글과 한국어를 이용하여 속자의 자음과 자의를 표기하였다.

5) 俗字之不載於字典者, 書於原畫之末, 而匡注鮮華音則依諧聲法而定之. 如畚, 帖, 條, 錦, 辻, 鰯之類字, 載於字典而原注外別. 有俗義之慣行者, 尾行匡注如頃, 倂, 倂之類.

셋째, 최초로 해당 속자를 부수를 이용하여 분류하였다.⁶⁾

이후 1928년 新文官에서 崔南善 등이 편찬한 『新字典』이 출판된다. 『新字典』는 권말에 『朝鮮俗字部』를 따로 배치하고, 그 안에 모두 106개를 수록하였다. 그런데 그 배열에 있어 해당 조선속자의 부수를 설정하지 않고 자형에 따른 필획수에 따라 배열을 함으로써, 『字典釋要』와는 다른 배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최남선은 조선속자를 중국의 한자와 별도의 것으로 취급할 뿐 아니라 관심을 일본에까지 넓혀 『朝鮮俗字部』와 『日本俗字部』로 구분하여 편찬하였다. 조선속자에 수록된 대부분의 한자는 한국 고유의 음을 나타내기 위한 “ㄷ, ㅌ, ㅊ, ㅌ, ㅍ” 등의 한자이며, 자음만 표기하고 자의를 따로 기록하지 않고 있다.

2. 발전기

위에서 살펴본 것들이 수집이라면, 수집을 뛰어 넘어 학술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인물은 일본학자인 야유카이 후사노신(鯉貝房之進)을 말할 수 있다. 그는 1931년 출판한 『雜考・俗字考』에서 213개의 한국만의 독특한 한자 사용을 분석하고 분류하였다.⁷⁾ 그의 연구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속자의 개념과 그 형성과정을 분석하여, “正字”와 “俗字”의 개념을 사용하는 동시에 속자를 이체자라고 정의하였다.

둘째, 속자를 俗字, 俗音字, 俗訓字로 분류하였다. 속자란 중국과 일본의 여러 사전과 사전에서 발견되지 않는 조선의 한자로, 그 조자 방법으로 회의와 해성으로 구분하였다. 속음자는 중국과 일본의 여러 사전과 사전에 수록되어 있으나, 그 독음이 조선의 독특한 독음을 가진 것으로 중국과 일본과 비교해 볼 때 同形異音異義 관계에 있는 한자이다. 俗訓字는 중국과 일본의 여러 사전과 사전에 기록된 자형이지만 중국과 일본의 한자와 同形同音異義 관계에 있는 한자이다.

셋째, 풍부한 문헌 자료를 훈고학과 성운학의 여러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그의 연구는 후학들에 의해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으나,⁸⁾ 최초로 학술적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의 연구 방법론이⁹⁾ 현재도 여전히 많은 연구에서 사용된다는 점은 매우 큰 성과이다. 이후 1957년 洪起文은 속자라는 명칭 대신에 “吏讀字”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분류법을 제시하였다.¹⁰⁾ 이 방식은 이두문 곧 한자 운용 방법에 따른 다른 분류 방식이었다. 그러나 변형자의 대분류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다.¹¹⁾

6) 당시 부수의 분류가 정확하지 않지만 그가 귀납한 부수의 원칙은 현재까지도 애용되고 있다.

7) 鯉貝房之進, 『雜考・俗字考・俗文考・借字考』, 東京: 國書刊行會, 1972.

8) 金鍾煥은 『雜考: 俗字考』에 수록된 213개를 재분석하여, 154개 “俗字”중 19개의 자형은 이체자에 속하며, 23개 속음자 중 14개는 비속음자이며, 36개 속훈자 중 12개는 속훈자라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9) 한자 자형의 유무를 살펴 동일 자형이 있는 경우 쓰임이 같은가를 기준으로 분류를 시행한다.

10) 홍기문, 『리두연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출판사, 1957.

11) 대분류 중 대응자는 동음대체의 현상으로, 이는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의미 없이 음만 나타내는 한자도 특정한 독음을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 그 성격 또한 음은 있으나 의미가 없는 新造字 등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959년 李炳熙는 관련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두 관점을 제시하였다.¹²⁾

첫째, 명칭에 관한 문제이다. 그는 한자를 이용한 한국어 기록하는 방법은 이두라 해야 하며, 중국 한자의 자의와 자음의 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속자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베트남에서 “字喃”이라 부르며 遼의 한자는 “遼字”, 女眞의 한자는 “女真字”, 일본 한자는 “倭字”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독특한 한자는 마땅히 “韓字”라고 지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조자 방법에 대한 분류법에 대한 견해이다. 그는 象形法, 會意法, 指事法, 形聲法, 假借法(한 개의 음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개의 자음을 합하여 한 개의 음을 표기하는 방법, 두 개의 자음을 이용하여 두 개의 자음을 함께 표기하는 방법), 借訓法, 訓과 音의 結合, 漢字와 한글의 결합 등으로 8가지 조자 분류법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학술적 연구에서 명칭과 분류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는 연구 주제였다. 한국고유한자 연구의 가장 큰 초기 업적은 1972년부터 1994년까지 연구를 진행한 김종훈이었다.¹³⁾ 현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고유한자”라는 명명은 김종훈이 최초로 사용한 것이다. 김종훈은 “한국고유한자는 한자를 빌려서 표기하는 방법에서 유래된 것으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사용된 바가 없이 오로지 한국에서만 사용된 것”이며 그 “목적은 인명이나 지명, 관직명, 어휘 등을 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고유한자를 “國造字”, “國音字”와 “國義字”로 구분하고, 이 분류에 따라 개별 고유한자를 고유명사표기와 이두표기 그리고 고유어휘 등으로 구분하고 상세히 고증하여 해석하는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그의 연구 방법론 또한 우선 자형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후 자음과 자의의 측면으로 연구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이론적 연구만 진행한 것이 아니라 각종 사전과 사전에서 새로운 고유한자와 그 실질적 예를 다량으로 수집하였다는 점이다. 1983년 집문당에서 출판된 『한국고유한자연구』에는 國造字 142개, 國音字 45개, 國義字 118자, 모두 305개의 한자를 연구하여 『雜字考』보다 약 100개의 한자를 더 수집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 중 “送”을 無音有義의 글자로 정의하였거나, “訃”, “訶”와 같은 글자를 有音無義로 분류하는 등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후 이충구는 “俗字” 혹은 “韓國固有漢字” 등의 학술용어는 한국 고유한자에 적합하지 않기에 “韓國漢字”

12) 李炳熙, 「한국속자에 대한 재검토」, 효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 1959.

13) 김종훈, 『한국고유한자연구』, 집문당, 1983.

김종훈, 「고유한자 연구 여적-수삼의 고유한자를 제시하며」, 『어문논총』 23, 중앙어문학회, 1994.

김종훈, 「고유한자(국자)고(1)」, 『국어국문학』 55-57합번호, 1972.

김종훈, 「고유한자(국자)고(2)」, 『중앙대학교 논문집』 18, 인문사회과학편, 1973.

김종훈, 「고유한자(국자)고(3)」, 『어문연구』 3권 3호 통권9호, 일조각, 1975.

김종훈, 「북한의 새옥편에 나타난 고유한자고」, 『連山 도수희 박사 화갑 기념 논총』, 연산도수희 선생화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94.

김종훈, 「鯨貝房之進의 속자고에 대한 분석고찰」, 『중앙대학교 논문집』 23, 인문사회과학편, 1979.

김종훈, 「鯨貝房之進의 속자고에 대한 분석고찰-특히 속음자를 중심으로」, 『蘭汀 남광우 박사 화갑기념논총』, 일조각, 1980.

김종훈, 「육당의 신자전에 관한 연구-조선속자를 중심으로-」, 『아카데미논총』 3, 세계평화교수아카데미, 1975.

김종훈, 「이두어휘고」, 『井山 柳穆相 화갑 기념 논문집』, 중앙대학교, 1988.

김종훈, 「이두표기에 나타난 고유한자고」, 『黃希榮 박사 화갑 기념 논문집』, 집문당, 1982.

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¹⁴⁾ ‘고유’라는 단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단지 자형만이 중국과 다른 한자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에 고유를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었다. 더욱이 “國音字”나 “國義字”의 한자는 이미 중국 고전적에 존재하는 개념으로, 여기에 한국의 자음이나 자의가 더해졌다고 하여 반드시 한국고유한자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또한 김종훈과 마찬가지로 “國字”와 “國音字”, “國義字”로 분류하였지만 그 내용이 다른 셈이다. 그의 연구가 다른 연구자들과 달랐던 점은 국어학적 측면이 아니라 훈고학이나 성운학, 자학과 같은 종래의 소학적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한편 김해숙은 음악 악보로만 사용되던 일련의 한자계 부호 발굴하여 한자로 정의하여 발표하였다.¹⁵⁾ 김해숙이 제시한 형태를 가진 자형은 다른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호를 문자로 볼 수 있는가이다. 예를 들어, 中聲의 글자에 위와 아래로 “丿” 혹은 “丨”를 더하는 방식으로 부호화시켜 음의 高低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나, 이들 글자는 독립적인 자음이나 자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은 음악에서 사용한 부호일 뿐 문자라고 보기 어렵다.

이후 1999년 하영삼은 완전히 새로운 방법과 시각에서 한국의 독특한 한자 사용을 분석하였다.¹⁶⁾ 그는 한국고유한자란 “한자가 전래된 이후 한국고유의 문화적 산물을 표기하기 위해 창조, 변용의 방식으로 사용한 한자”라고 정의하고, 國字와 國音字, 國義字로 분류하였다. 표면적으로는 같은 용어 사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정의와 분류 각도는 기존의 것과 다르다. 그는 문화라는 각도에서 한국고유한자를 정의하였다. 따라서 “國字”에 대해 어떤 글자가 특정 지역에 사용되면서 자의와 자음에서 차이가 없다면 이 또한 국자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자음과 자의에서 유사성이 없다면 이는 어떤 특정 지역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적 배경 아래 생산된 것으로, 한 자형이 두 개 이상의 지역에서 발견된다면 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교류한 흔적인지 아니면 한자를 사용하던 지역 속에서 우연히 발생한 우연성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의를 따르게 되면 國字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字音과 字義의 특성에 따라 국자를 규정하지는 그의 견해는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그는 해당 한자 전체를 대상으로 변형된 육서이론을 적용하여 조자유형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象形, 會意, 形聲, 合音(漢字+漢字, 한국식 혼독+혼음, 자음 반절의 結合, 合字, 漢字+한글), 변체, 其他” 등 6개 조자 유형을 제시하고 아래와 같이 213개 國字의 유형을 통계하였다. 결국 하영삼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한자의 독특한 사용 현상을 문화와 연결시켰다는 점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첫째, 한국고유한자 중 지명과 인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인명용 한자는 오행의 상생상극이론의 영향을 받았고, 아이들에게 비교적 친한 이름을 지어 준 당시의 사회 관습 반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중국어와 한국어는 서로 다른 언어 계통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기록하기 위해 한국어법의 성분을 반영하였다.

14) 이충구, 「한국한자연구서설」, 『새교육』, 1982.

15) 金海淑, 『전통음악개론』, 어울림, 1985.

16) 하영삼, 「한국 고유한자의 비교적 연구」, 『중국어문화』 33, 한국중국어문화회, 1999.

셋째, 단위로 사용하는 한자가 많다.

넷째, 유가 사상의 영향을 받아 대량의 궁중 어휘와 남녀차별 개념의 어휘가 발견된다.

다섯째, 특산물이나 공구, 제도, 음악 등과 관련된 글자들은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여섯째, 한국인의 생활 습관이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아 생성된 글자들이 많다.

이처럼 하영삼의 연구는 한국고유한자를 문화적 각도에서 새롭게 분류 정리하여 문화적 특성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처음으로 한자학 이론을 적용하여 한자를 연구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후 박성종은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여 한국고유한자를 분류하였다.¹⁷⁾ 그의 자형 판단 순서 또한 자형에서 출발한다. 만일 한국만의 독특한 자형이 있으면 이를 이체자의 범주에서 고려해 보고, 다른 국가에서 사용된 적이 없다면 음과 의가 한국 고유의 것인지 확인하고 판단한다. 국의자의 분류에 있어서 그는 국음자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異音國義字”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대체적으로 수궁할 만한 하지만, 國變字의 省畫字, 略字, 符號字, 異體字, 俗字, 訛字의 분류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를 남기고 있다. 실제 訛字, 俗字는 모두 異體字의 범위에 속하며 異體字가 한국 고유의 특수한 자형 사용의 범위인지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省畫字 또한 부호와 문자의 경계가 애매하다. 구결자의 경우 원 자와 그 기능이 다른 것으로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자형의 일부를 사용하여 자형도 다르고 기능도 달라졌기에 이는 한자와 부호의 어느 지점에 분류해야 하는지 모호하다¹⁸⁾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의 독특한 한자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2년 대만교육부 國語推行委員會에서 『異體字字典』을 제작하면서 부록으로 『韓國特用漢字表』를 포함시켰다.¹⁹⁾ 韓國特用漢字란 바로 한국에서 독특하게 사용된 한자로 여기에는 255개의 한자가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는 대만 교육부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鄭錫元이 정리하여 제공한 것이다. 그는 『大漢韓辭典』, 『韓國固有漢字研究』, 『漢字音訓借用表記體系研究』 등에서 글자를 수집하고 아래 표와 같이 부수 검색법과 모든 글자의 자의, 획수, 자음(로마자 표기) 등의 여러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조자 분류나 새로운 해석, 새로운 글자들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초로 중화권에 한국고유한자를 소개하고 이용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후 2004년 中國延邊大學出版社에서 李得春 외 4인이 공저한 『中韓語言文字關係史研究』가 출판되었는데, 上권 제264쪽부터 제277쪽까지 “韓國特有漢字”가 포함되어 있다.²⁰⁾ 그들은 韓國自造漢字, 中國漢字取新音, 中國漢字取新義와 口訣簡略字 등 4개로 분류하고, 韓國自造漢字를 음과 義가 서로 모순되는 漢字, 음과 義가 일치하는 漢字, 음은 있으나 의가 없는 한자로 분류하였다. 새로운 자의, 혹은 자음을 부여한 한자 또한

17) 박성종 「한국한자의 일고찰」, 『구결연구』 14, 구결학회, 2005.

18) 이상의 연구 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고유한자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으나 본고에서는 특기할 만한 연구 성과만을 소개하였다.

19) 대만교육부 國語推行委員會, 《異體字字典》-《韓國特用漢字表》, 2002.
<http://dict2.variants.moe.edu.tw/fulu/fu5/kor/index.htm>(검색일 : 2019.4.20.).

20) 리득춘, 『한조어언문자관계사』, 연변 :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92.

음과 의가 동시에 변화한 자와 음, 혹은 의만 변화한 자로 분류하였다. 한편 육서 이론을 이용하여 形聲法, 會意法, 合成字, 象形字, 半字(略字), 假借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은 통시적 서술을 통해 한국에서 한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하였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연구의 중점이 한국의 독특한 한자 사용에 중점이 있거나 이전보다 더 깊은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의 연구 결과를 수합하여 분류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립성호는 “朝鮮漢字”를 “이미 존재하는 중국 한자로는 조선 고유의 사물이나 개념을 표기하기에 부족하여 한자의 조자원리를 이용하여 새롭게 만든 한자나 모방한 한자”로 정의하였다. 또한 “조선한자”를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여 광의의 조선한자는 國造字와 國音字, 國義字, 그리고 여러 略字(예를 들어 隱托字 ㄷ (隱), ㄴ(奴), ㄷ(也), ㄱ(古))를 포함하였고, 협의의 조선한자는 국조자로 한국에서 창조한 한자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그는 조자법 상 일본 한자와 조선 한자는 큰 차이가 없으며 단지 조선한자는 형성자가 많은 반면 일본 한자는 회의자가 많으며, 조선한자가 일본한자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생하였으나 양의 증가는 근세에 폭발적이었으나 일본한자는 대부분 중세시기에 이미 사용이 되었고, 용도 방면에서 조선한자는 인명이나 지명, 관직명이 많으나 일본에서는 물고기 이름이나 식물 이름 서양 의술과 관련된 글자들이 많다는 것을 통계로 제시하였다.²¹⁾

이상의 제 연구에서 살펴보았듯 한국에서 독특하게 사용된 일련의 한자와 그 사용 현상에 대한 학술 용어상의 명칭과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俗字’, ‘朝鮮異體’, ‘韓國固有漢字’, ‘異體’, ‘韓俗字’, ‘韓國漢字’, ‘朝鮮漢字’, ‘借字’, ‘吏讀’ 등으로 다르며, 그 정의 또한 협의와 광의로 구분되는 등 같지 않다.

초기 연구자들이 사용하였던 “俗字”는 고전적에서 사용된 “土俗字”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는 오랜 동안 영향을 받았던 유가의 “雅俗”관념과 연결되어 문자 사용상에서도 正俗으로 분류한 것이다. 正과 俗의 개념은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 용어 사용에 개입된 것으로, 이 때 말하는 속자란 한자학에서 사용하는 정자에 반하는 “俗字”라는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 “異體字”도 다르지 않다. 한국의 한자가 이체자가 아니라 한자에 있어 정자에 반하는 자형을 말한다. “韓國漢字”라는 용어도 오해를 일으키기 쉽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자인지 중국과 다른 자형을 가진 한자인지, 아니면 한국고유한자 자형인지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자란 표현도 한국 문자인 한글로 오해될 수 있으며, “吏讀”은 한자를 이용하는 운용의 한 방식으로 한국고유한자에는 이 두 외에도 여러 다른 방식이 존재하므로 종합 명칭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²²⁾

21) 립성호, 「조선국자와 일본국자 비교연구」, 『중국조선어문』 143, 길림성민족사무원위원회, 2006.

22) 명명과 정의 뿐 아니라 그 분류 또한 연구자마다 다르다. 固有漢字와 國音字, 國義字, 俗體字, 略體字, 異體字 사이의 관계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Ⅲ. 기호와 부호, 문자, 한자의 용어 검토

한국의 독특한 한자 사용 현상에 대한 명칭 및 정의, 분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논의 사항은 漢字와 부호의 구분에 관한 것이다. 이 구분이 명확치 않기에 악보 기호나 구결자 등을 한자로 귀납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뿐 아니라 한자문화권 전반에 걸친 독특한 한자 사용 현상에 관한 학술적 명칭을 재검토하기 전, 한자를 정의할 수 있는 기호와 부호, 문자 등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선행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 기호란 시각적 기호(Visual sign)로 사용되어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문자, 표장, 부호 따위나 또한 그것으로 나타내는 일을 말한다. 곧 기호는 특정한 의사나 정보를 표시하는 모든 시각적 표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현재 이 글에 사용되고 있는 한글이나 알파벳, 문장부호 혹은 사회생활에서 사용되는 화살표나 교통 표지 등 혹은 모바일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모티콘 등을 모든 정보 전달의 시각 도구가 기호이다. 기호 중 인간의 언어를 기록하는 것을 ‘문자’라하고, 이외의 것을 ‘부호’라 칭한다. 곧 문자란 인간의 언어를 기록하는 기호 체계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호로서의 문자 중 phonetic system인 경우 실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특성, 즉 자의성에 의한 음가 부여와 어떤 이유로 일치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표현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를 표기하는데 사용되는 기호의 모양이 이 소리와 왜 연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²³⁾

한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상형성이 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한자의 모양과 음이 어떤 이유에서 그 대상과 연결 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木를 보면 나무를 떠올리게 되지만, 氣를 보면 이 의미와 모양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떠올리기란 쉽지 않다. 음가를 떠올리기란 더욱 쉽지 않다. 곧 ideographic과 phonetic system은 세미오시스(semiosis)²⁴⁾를 어느 쪽에 가깝게 표현하는가에 있을 뿐 명확하게 하나의 특성만을 지닌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문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문자는 중요치 않다. 사용자가 해당 문자 사용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과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해당 문자를 사용한다는 의미이다.²⁵⁾ 같은 언어나 동일 문자체계라도 다른 사회 환경 속에서는 다른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이처럼 문자는 공통된 개념보다는 자의적으로 어떤 정보를 표현하게 되며, 이렇게 구성된 자의적 정보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 정보 혹은 정확한 정보라는 형태로 구성되게 된다. 이 때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은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에 더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문자로 번역되는 character는 letter를 통해 그 차이를 분명히 할 수 있다. letter란 알파벳의

23) 물론 한글의 자음의 경우와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24) 전경갑, 오창호(2003), 『문화적 인간 인간적 문화』, 푸른 사상사, 24~27쪽. 재인용.

25) 교육의 필요성과 성취 등급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음가적 혹은 의미적 속성을 의미하지만 character는 그 형태적 다양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Sign은 4개의 letter 혹은 8개의 character로 구성할 수 있다. 곧 같은 letter라도 각기 다른 character로 구성할 수 있다. 한국어를 표기하는 한글에도 이러한 속성이 드러난다. ‘한글’이 표현하는 letter는 6개이지만, character는 사용하고자 하는 글립(glyph)에 따라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자 또한 다르지 않아 협의의 이체자라면 하나의 letter를 표현하는 다른 character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표음문자체계에서는 음가를 구성하는 letter가 중요하겠으나 한자의 경우에는 character가 중요하기에, 한자를 Chinese Characters라고 지칭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자는 다른 문자와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⁶⁾

- ① 한자는 한 자형이 해당 記意를 나타내는 어소문자이다.
- ② 한자는 형음의의 3요소로 구성되며, 형 - 의의 관계를 중시한다.
- ③ 한자는 획과 단일 혹은 다중의 부건으로 구성되어 方形 구조로 표현된다.
- ④ 本과 末의 경우처럼 부건, 획의 위치와 구성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 ⑤ 从과 北처럼 동일 부건이라도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한자가 된다.
- ⑥ 日, 昌, 晶과 같이 동일 부건의 숫자에 따라 각기 다른 한자가 된다.

④~⑥의 특성이 발생한 것은 결국 ③의 특성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이 특성은 주변 국가의 문자 형식이나 사용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거란문자나 여진문자, 혹은 한글의 경우에도 이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자 생활은 직간접적으로 한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한어(중국어)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문자의 형태나 운용 면에서를 말한다.

한편 ①번과 ②번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한자의 3요소는 형음의라고 한다. 그러나 이 표현은 보다 정확히 말하면 方形의 1음절 詞를 말하는 것으로, 자와 사가 혼동된 것이다. 字는 形으로 시각적 정보를 제공해 줄 뿐이며, 시각적 정보는 곧 어휘의 의미 혹은 음가에 대한 대개의 정보를 보여줄 뿐이다. 실제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정확한 정보는 사용자들이 규정한 약속에 의해 구성될 뿐이다. 곧 어휘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언어의 문자는 형태나 음가 혹은 의미가 없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단지 그것이 독립된 것처럼 보이는 형태로 사용 되는가, 다른 요소들과 결합된 형태로 사용된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자 또한 구건들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기에, 마치 모아쓰기와 풀어쓰기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다시 강조한 것은 형태에 따라 음과 의가 반드시 연관되어 결정되지 않아, 어떤 경우에 형태가 음과 의미 중 어떤 것과도 연관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와 가차의 용법에서는 이런 경우가 빈번히 보인다. 같은 중국어 내에서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와 연계될 때도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26) 김은희(2012)는 한자의 특성을 한자의 구조적 특성(필획의 조합, 정방형, 모아쓰기)과 제자원리로 구분하여 남방계 문자와 비교하였다. 이는 중국이나 일본의 학자들의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음자의 경우를 보면 좀 더 명확해 진다. “**鄼**”의 의미를 가진 한국 고유어는 “水刺”인데, 일부 연구자들은 “刺”의 자의를 한국 고유의 것이라고 하여 國義字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 단어는 몽고어를 기록한 것일뿐 자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 전적 속에서 많이 발견되는 “干”도 이러한 예이다. 어떤 연구에서는 “干”의 의미항에 “수장, 王의 별칭”을 넣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보편적 언어 현상으로 한국만의 독특한 자의라고 말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들은 음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었지 음이 의미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한자의 정의에 대해 다시 고민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현재 학계에서 통용되는 정의는 “중국어어를 기록하는 서사 부호 체계” 혹은 “중국에서 발생하여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개별 지역과 국가에서 공통으로 사용했던 서사 부호 체계”이다. 그런데 이 두 정의는 협의와 광의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정의가 필요한 이유는 모든 국가에서 한자의 특성을 그대로 사용하여 문자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해당국의 필요에 따라 한자를 변용하여 부호로 이용하기도 하며, 일부 한자의 구성 부분에서 character의 의미는 사라지고 sign 혹은 mark의 역할만 담당하도록 이용하는 현상도 있었기 때문이다. 곧 이에 따라 한자를 정의한다면 각 국의 언어에서 기표적 기능을 발휘하였던 것 뿐 아니라 각 언어의 독특한 현상을 반영하여 변용되거나 한자의 원리를 이용한 창조까지 포함한 것을 말하며, 이는 더 이상 한자가 특정 언어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문자가 언어의 표기이며, 언어는 문화의 소산이라면, 사실 모든 어휘는 모두가 ‘고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기표 대상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베트남어에 따라 문자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며, 이를 우리는 중국어를 표기하는 한자, 일본어를 표기하는 한자, 한국어를 표기하는 한자로 규정할 수 있다. 여기에 개별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변용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한자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기존의 한자를 중국어를 기록하는 서사 부호 체계라는 정의에서 벗어나, 모든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공통의 문자 체계였다는 시각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한자는 특정 언어가 아닌 다양한 언어 환경에 의해 맞게 창조되고 변용되는 보편 문자로서의 기준 체계이다. 이는 라틴어를 기록하는 수단이었으나 라틴어 계열이 아닌 다양한 언어 속에서 기록 문자의 기본적 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라틴문자와 같다. 결국 Chinese-character나 Sino-Korean과 같이 특정 언어에 기대는 명명 방식에서 탈피하여,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한자계문자라는 용어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IV. 용어 “漢字系文字” 재정의와 분류

사실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러한 현상에 대해 고민하였고, 이를 정의하고 분류하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는 문자의 발생과 사용에 따라 自源文字와 借源文字로 구분하는 연구가 오랜 동안 진행되었다. 이 때 한자계

문자는 문자의 생성 원류가 한자인 차원문자를 이르게 되며, 이 때 源은 중국의 한자를 지칭한다. 곧 중국의 한자를 기원으로 보아 그 기원에서 발생한 주변 문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중국의 저명학자인 周有光은 이러한 한자를 漢字型文字로 명명하였는데, 그는 한자를 모방하여 형성된 것(파생 혹은 변이)과 새로운 문자체계(표음문자)로 전환된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王鋒은 한자계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한자의 제자 원리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²⁷⁾ 결국 한자를 기원으로 보아 거기서 파생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모든 문화가 중국을 중심으로 전파되었다는 중화주의식 논리이다.

일본인 학자인 吉池孝一은 이러한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른 분류 방식을 제안한다. 그는 전체를 아우르는 명칭으로 “漢字關聯文字”를 제시하고, 한자계 문자(변용문자, 변형문자, 파생문자)와 疑似漢字系文字, 그리고 비한자계문자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²⁸⁾ 그의 주장은 동아시아 전반에 걸친 여러 민족과 국가의 문자체계 전반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훈민정음 또한 “한자 관련문자”라는 대분류 안에 포함되는 등 상호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중국이든 일본이든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용어나 정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잠재적 동의가 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한자의 구성원리 혹은 제자원리, 특성 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한자계문자라고 지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그 정의나 분류에 있어서는 周有光, 王鋒, 吉池孝一와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漢字系文字”라는 용어에 새로운 정의와 분류를 제시한다. “漢字系文字”는 한자 문자적 특성의 영향을 받아 한자문화권 각 국, 민족 내에서 수용, 변용, 참고하여 사용하였던 모든 문자와 부호”를 말한다.

곧 중국에서 제작되어 각 국에 전파되어 사용되었던 공통의 한자 사용 이외에도 개별 국가의 문화를 통해 생성된 어휘를 표기하기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漢語漢字와 韓語漢字, 日語漢字, 越語漢字와 더불어 한자의 문자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거란과 여진 등 주변국의 여러 문자, 그리고 한자 형태의 일부분을 생략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한 부호 등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를 지닌다. 한편 漢語漢字는 크게 근대를 기준으로 전통자와 신조자²⁹⁾로 구분되며, 전통자 중 한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 특정한 무엇인가를 표기하기 위하여 음가를 변형하거나 의미항이 증가된 것은 기존의 자형에 한국음이나 한국의가 추가된 것으로 변격한자로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자형이 생성될 경우 이는 정격한자 등으로 지칭된다. 만일 언어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부호로서만 활용된 경우, 곧 그 형태가 한자 자형을 이용하거나 영향을 받았을 경우 이를 한자계부호로 한다. 다시 정리하면, 한자계문자의 큰 분류는 한자와 한자계부호, 방한자문자(거란, 여진, 일본 문자) 등이며, 한자는 다시 정격한자(정자, 이체자)와 변격한자(한자와 다른 문자의 결합, 음이 다른 자, 의가 다른

27) 한자의 개별 글자 자체를 차용한 ‘假借漢字’, 한자의 필획을 차용하여 한자의 편방과 유사한 字素를 만들고 이러한 字素를 조합하여 만든 글자인 ‘漢字筆劃字’, 한자의 결합구조 및 제자원리를 모방하여 만든 글자인 ‘漢字仿造字’, 한자의 형체 일부분을 생략하여 만든 ‘漢字省略字’, 기존 한자의 필획을 증감하거나 글자형체를 변형하여 만든 漢字變體字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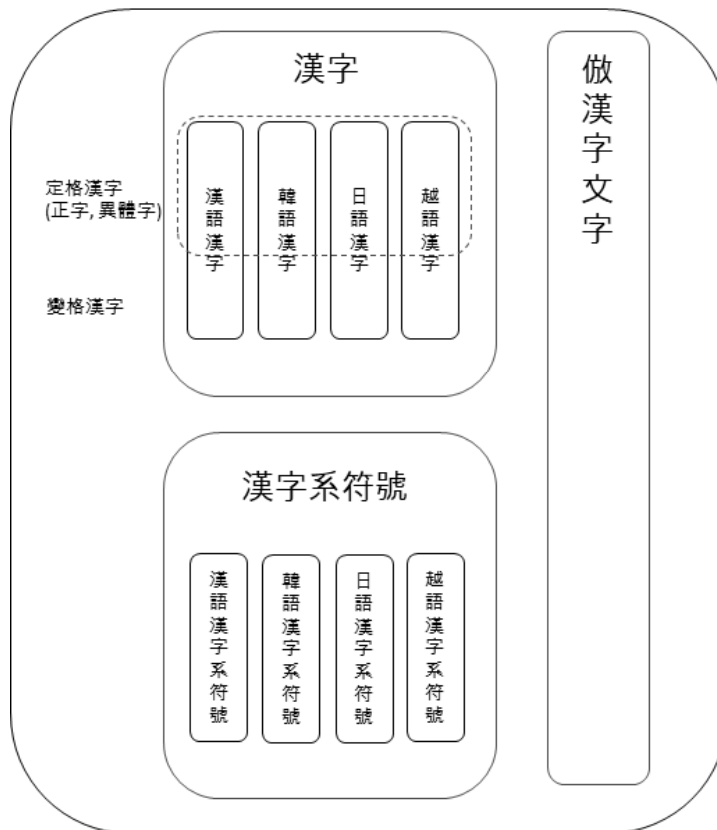
28) 吉池孝一, 「非漢字系の漢字関連文字」, 『KOTONOHA』 51, 古代文字資料館発行, 2007.

29) 중국에서는 현재에도 한자가 생성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근대 이후 새롭게 생성된 자형 중에는 한국이나 일본, 베트남 등 타 국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신조자로 칭한다.

자)이며, 한자계부호는 각 국가에서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는 부호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약부호나 구결부호 등이 속하게 되며, 중국의 경우에도 주음부호에 사용한 부호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분류에서 사용된 ‘한자계문자’라는 명칭에서 한자는 시각적 기호로서의 문자적 속성에 기인할 뿐 음성언어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구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한자문화권의 문자 생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漢字系文字



V. 결 론

한국에서 독특하게 사용된 한자의 여러 모습은 전체 한자 연구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이민족 이국가의 언중들이 한자를 받아들여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

나 무엇보다 한자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그 시각적 표의성의 유사성이 있기에 가능하다. 곧 사람이라는 존재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대상이 유사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모국어의 언어로 치환하여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언어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 아래 새로운 개념어와 같은 기표대상이 발생할 때 동아시아 각 국은 한자의 형식을 차용 혹은 변용하여 발전시켜 보다 풍부한 문자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한자는 중국어 뿐 아니라 한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를 기록하였고, 각 국과 민족은 한자를 직접 이용하거나 변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면서 나름의 문자 생활을 수행하거나, 한자의 문자적 속성을 이용하여 새로운 문자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렇듯 한자문화권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공통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한자문화권은 단지 문자와 문언만 공유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언어를 표현하는 실험적 문자 변용이 꾸준하면서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연구주제는 한국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적 특성을 연구하고 인문학적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자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와 그 함의를 새롭게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하고 제시하였다. 漢字系文字는 漢語漢字와 韓語漢字, 日語漢字, 越語漢字는 물론 한자의 영향을 받아 한자의 문자적 특성을 지니게 된 거란과 여진 등 주변국의 여러 문자, 그리고 한자 형태의 일부분을 생략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한 부호 등을 모두 포함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 명칭은 음성언어가 아닌 문자로서의 속성에 따라 제시한 용어이다.

물론 지금까지 오랜 동안 사용되었던 이 “한국고유한자”라는 용어나 國字, 字喃 등의 역사성 있는 용어를 대체하거나 변경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새로운 시각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金榮華, 『한국속자보』, 아세아문화사, 1986.
- 김종훈, 『한국고유한자연구』, 집문당, 1983.
- 金海淑, 『전통음악개론』, 어울림, 1985.
- 리득춘, 『한조어언문자관계사』, 연변: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92.
- 鯉貝房之進, 『雜考: 俗字考·俗文考·借字考』, 東京: 國書刊行會, 1972.
- 王鋒, 『从汉字到汉字系文字: 汉字文化圈文字研究』, 民族出版社, 2003.
- 김은희, 「한자의 수용과 변용: 한자의 특성과 중국 남방 漢字系文字의 제자원리」, 『중국언어연구』 41, 2012.
- 김종훈, 「고유한자 연구 여적-수삼의 고유한자를 제시하며」, 『어문논총』 23, 중앙어문학회, 1994.
- 김종훈, 「고유한자(국자)고(1)」, 『국어국문학』 55-57합병호, 1972.
- 김종훈, 「고유한자(국자)고(2)」, 『중앙대학교 논문집』 18, 인문사회과학편, 1973.

- 김종훈, 「고유한자(국자)고(3)」, 『어문연구』 3권 3호 통권9호, 일조각, 1975.
- 김종훈, 「북한의 새옥편에 나타난 고유한자고」, 『連山 도수희 박사 화갑 기념 논총』, 연산도수희 선생화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94.
- 김종훈, 「鯨貝房之進의 속자고에 대한 분석고찰」, 『중앙대학교 논문집』 23, 인문사회과학편, 1979.
- 김종훈, 「鯨貝房之進의 속자고에 대한 분석고찰 - 특히 속음자를 중심으로」, 『蘭汀 남광우 박사 화갑기념논총』, 일조각, 1980.
- 김종훈, 「육당의 신자전에 관한 연구 - 조선속자를 중심으로 -」, 『아카데미논총』 제3집, 세계평화교수아카데미, 1975.
- 김종훈, 「이두어휘고」, 『井山 柳穆相 화갑 기념 논문집』, 중앙대학교, 1988.
- 김종훈, 「이두표기에 나타난 고유한자고」, 『黃希榮 박사 화갑 기념 논문집』, 집문당, 1982.
- 남풍현, 「한국의 고유한자」, 『국어생활』 17, 국어연구소, 1989.
- 박균철, 「한일한자에 대하여 - 국자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24, 한국일본어문학회, 2005.
- 박성종, 「한국한자의 일고찰」, 『구결연구』 14, 구결학회, 2005.
- 유재영, 「이름표기의 한 연구」, 『논문집』 13,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9.
- 유재영, 「지명표기의 한 고찰: 龍飛御天歌 註解를 中心으로」, 『논문집』 8, 원광대학교, 1974.
- 유재영, 「한국한자」, 『국어국문학』 30,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6.
- 李柄熙, 「한국속자에 대한 재검토」, 효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 1959.
- 이충구, 「晝永編에 蒐集된 韓國漢字의 分析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학회』, 1983.
- 이충구, 「한국한자 연구」, 『동방학지』 4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3.
- 이충구, 「한국한자연구서설」, 『새교육』, 1982.
- 이충구, 「한국한자의 형음의 연구」, 『동방학지』 36-37합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3.
- 이현주·조동성,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의 특징 및 과제」, 『한국어의미학』 35, 2011.
- 임성호, 「조선국자와 일본국자 비교연구」, 『중국조선어문』 제143,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06.
- 하영삼, 「한국 고유한자의 비교적 연구」, 『중국어문학』 33, 한국중국어문학회, 1999.
- 홍기문, 『리두연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출판사, 1957.
- 吉池孝一, 「非漢字系の漢字関連文字」, 『KOTONOH』 51, 古代文字資料館発行, 2007.
- 吉池孝一, 「中国周辺の擬似漢字系文字」, 『KOTONOH』 50, 古代文字資料館発行, 2006.
- 吉池孝一, 「中国周辺の漢字系文字」, 『KOTONOH』 49, 古代文字資料館発行, 2006.
- 西田龍雄, 「東アジアの諸文字」, 『言語学大辞典別巻 世界文字辞典』, 三省堂, 2001.
- 西田龍雄, 「漢字の生成発展と“擬似漢字”の諸相」, 『書道研究』, 1987.
- 王鋒, 「试论南方汉字系民族文字」, 『贵州民族研究』, 22, 2002.
- 周有光, 「汉字文化圈的文字演变」, 『民族语文』, 1989.
- 周有光, 「汉字型文字的综合观察」, 『中国社会科学』, 2, 1988.

대만교육부 國語推行委員會, 《異體字字典》- 《韓國特用漢字表》, <http://dict2.variants.moe.edu.tw/fulu/fu5/kor/index.htm>

* 이 논문은 2019년 2월 22일에 투고되어,
2019년 3월 2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9년 4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4월 11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From the Point of View of Academic Terms, the Term ‘Han Gukgoyuhanja (韓國固有漢字)’ is Proposed as a Way to Solve the Problem of Classification and Name of ‘Han-character System’

Heo, Chul*

Academic terms are the most basic tool in communication between researchers as well as ordinary people who accept related research. Thus, academic terminology is a common commitment of all users, and while including precise implications, it should eliminate as much room for misunderstanding or misunderstanding as possible.

This research have a main aims to review the term and classifications of the Some Han-Character, which has long been used uniquely in Korea, and to come up with new suggestion about term. As the preceding study shows, the terms associated with this issue are not only ‘俗字’, ‘朝鮮異體’, ‘異體’, ‘韓俗字’, ‘韓國漢字’, ‘朝鮮漢字’, ‘借字’ and ‘吏讀’, but the definitions are also not widely separated from consultation. Categories also vary from researcher to researcher. Although the set area between 固有漢字 and 國音字, 國義字, 俗體字, 略體字 and 異體字 is different, these terms are confuse using in this study.

This study presented the term “漢字系文字(Han-Character system)”, “漢字系文字” refers to all letters and symbols used within each country and nation of the Han-character culture sphere, subject to the influence of the character characteristics of Han-characters. It has broad meanings including the character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漢語漢字, 韓語漢字, 日語漢字, and 越語漢字, and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Khitan, which adopted Han-Characters style, and the symbols used by omitting or modifying parts of Han-characters.

[Key Words] Korean traditional Chinese characters, Han-Charcter System, Han-character Symbol, mark, Sinography, Sino-sphere, Han-character culture sphere

* Researcher, Dankook University